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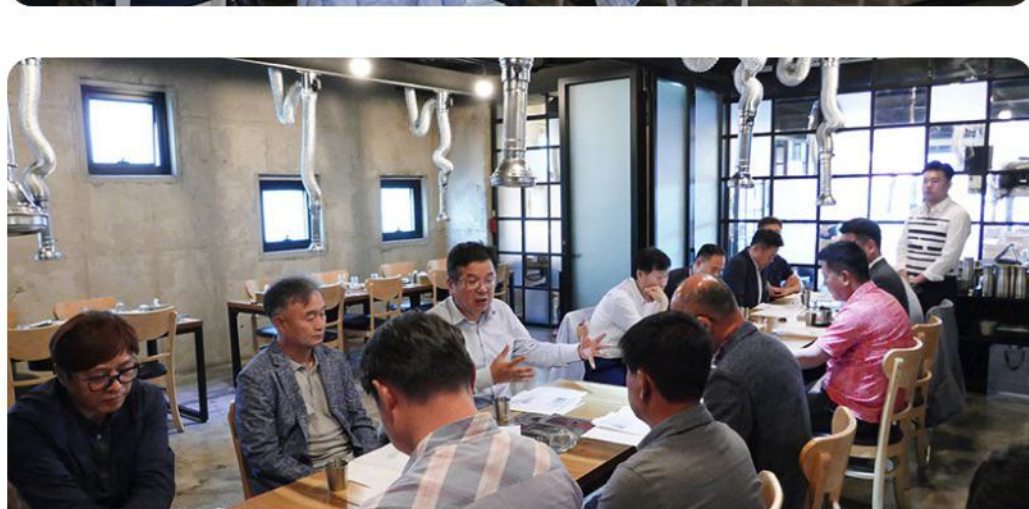
<하기 글은 2016년 10월 4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6월 정기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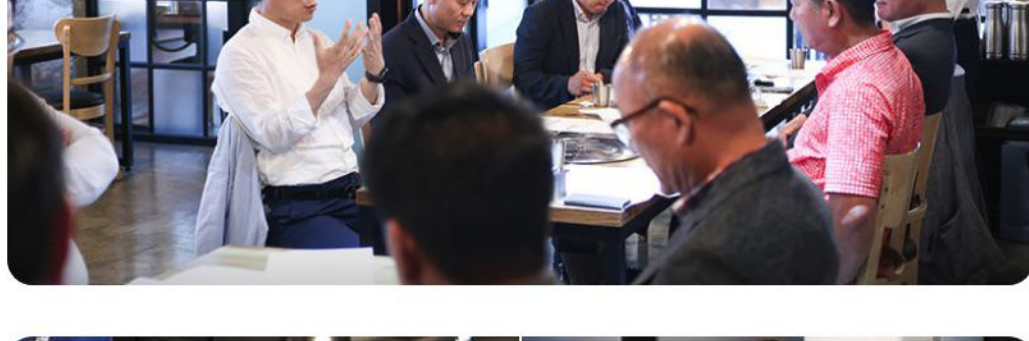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지난 21일,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6월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소통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소통협의회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6월 삼성전자·화성소통협의회는 두 분의 위원이 타 지역 이상의 사유로 사임하게 되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자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H3 인근 능동 상가연합회 민원 요청사항을 나누었는데, 최근 신규 라인 공사로 인해 협력사 직원의 무단 주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임직원 및 협력사가 사업장 인근 무단 주차시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동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민원 예방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EUV라인 건설사인 삼성물산에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EUV라인 관련 민원 발생 현황을 공유했는데, 5월과 6월에 발생한 민원은 총 3건으로 소음과 미화에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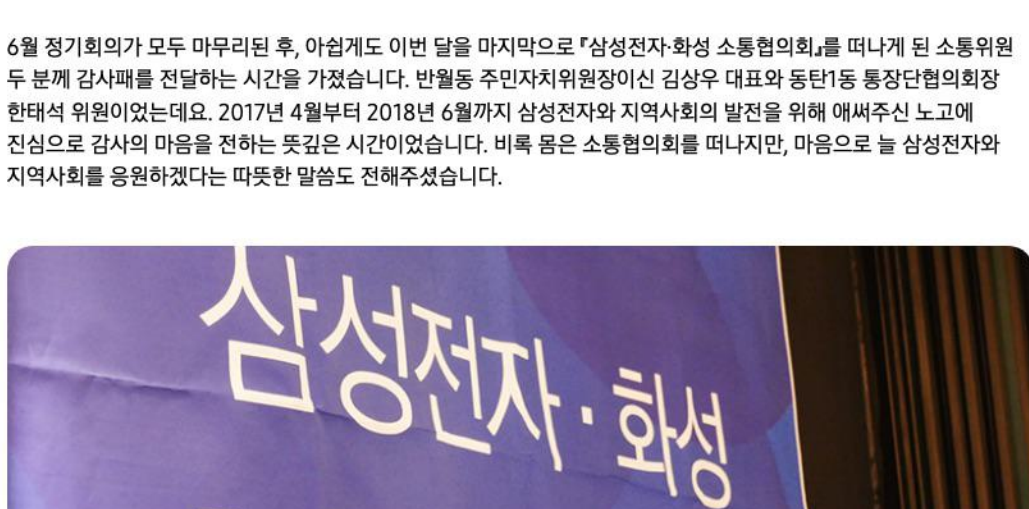
이어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내 '현혈 캠페인'인데, 이를 통해 임직원 612명의 현혈로 모인 기금 700만 원이 총 7명의 탈북민 고교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버스 시즌 2'가 운영되었는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남아공참전비(평택) 식목 및 정화활동 등 보훈에 대한 주제로 봉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여름강종축제와 에코도르 해외 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삼성전자 소식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삼성전자 공장 유해물질이 법적 허용치의 10% 이하라는 이야기와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DS부문과 동탄1동이 함께한 체육대회 소식, 삼성전자가 미치는 평택 지역 경제에 관한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더욱 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발전과 상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으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6월 정기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월 정기회의가 모두 마무리된 후, 아쉽게도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를 떠나게 된 소통위원 두 분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월동 주민자치위원장인 김상우 대표와 동탄1동 통장단협의회장 한태석 위원이었는데요,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삼성전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소통협의회를 떠나지만, 마음으로 늘 삼성전자와 지역사회를 응원하겠다는 따뜻한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무렵, 맛있는 석식과 함께 진행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6월 정기회의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삼성전자의 발전, 주민분들의 불편 없는 생활, 그리고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할 소통위원회 삼성전자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